

일본 대학의 등록금 규제 현황과 시사점

I.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16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등록금 규제로 인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법정등록금 인상조차 억제되어 동결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재정 악화로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저하되고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등록금 규제로 인해 재정적으로 한계에 이른 대학들은 최근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령으로 표준액인 53만 5,800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20%까지 인상이 허용됨. 그러나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일본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도쿄대학은 2025년부터 학부입학생의 등록금을 약 10만 7천엔 인상하여 64만 2,960엔으로 결정함. 그 배경에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교부금'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악화가 있으며, 국립대학의 수업료 표준액은 2005년부터 20년간 53만 5,800엔으로 동결되어 왔다는 점에 있음
-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 비중이 높으며, 국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선을 설정해 온 일본정부의 등록금 규제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등록금 규제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II. 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

국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

- 국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는 국립대학법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문부과학성 성령인 「국립대학등수업료기타비용에 관한 성령」으로 정한 표준액(입학금 28만 2천엔, 수업료 53만 5,800엔)의 20%까지 한도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국립대학등수업료기타비용에 관한 성령」(수업료상한액등)

제10조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에 소속하여 설치하는 학교의 수업료의 연간액, 입학금 또는 입학 등과 관련한 검정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음

제11조 : 국립대학법인은 당해 국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대학 또는 전수학교(전문과정)의 외국인유학생의 수용을 위한 환경정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유학생의 수업료 연간액, 입학금 또는 입학과 관련된 검정료를 정할 수 있음



〈표 1〉 국립대학등의 수업료 기타 비용에 관한 성령 제2조

구분		연간수업료	입학금	검정료
대학의 학부(아래 항목 제외)		535,800엔	282,000엔	17,000엔
대학 야간학부		267,900엔	141,000엔	10,000엔
대학원 연구과(아래 항목 제외)		535,800엔	282,000엔	30,000엔
법과대학원		804,000엔	282,000엔	30,000엔
대학전공과(단기대학 제외)	특별지원교육특별전공과	273,900엔	58,400엔	16,500엔
	기타전공과	535,800엔	169,200엔	18,000엔
대학 별과	음악별과	535,800엔	84,600엔	9,800엔
	양호교원특별별과	273,900엔	58,400엔	8,300엔
	기타 별과	390,000엔	84,600엔	9,800엔
승선실습료		267,900엔	169,200엔	18,000엔
* 이료(理療)과 교원양성시설		36,000엔	12,000엔	5,000엔
단기대학학과(전공과 포함)		390,000엔	169,200엔	18,000엔

출처: 문부과학성 「국립대학등 수업료 기타비용에 관한 성령」 <https://laws.e-gov.go.jp/> / 일본법령정보웹사이트

* 이료과 교원양성시설이란 시각장애인학교에서 지압, 침술, 뜸 등 동양의학적 치료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를 말함

- 국립대학에 대한 등록금은 상기 문부과학성 부령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표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음
- 국립대학에 대한 등록금은 국립대학의 수준에 준하여 설정되며 설립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록금 규정에 따름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

-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정부의 등록금에 대한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각 대학법인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그 수준은 대학법인의 건학정신, 교육·연구, 경영·재정에 대한 이념·방침에 따라 다름
 -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이념을 갖고 있는 대학법인은 수업료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소수교육,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법인은 수업료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일본 정부는 정책적으로 전혀 방관하지는 않았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등록금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1970년대부터 사학진흥조성금제도를 통한 사학재정지원 정책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시설비 등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함으로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을 상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일본의 사학조성제도는 1970년에 사립대학등에 대한 경상비보조금제도가 창설되어 사립대학의 인건비를 포함한 교육연구 관련 경상비적 경비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음. 그러나 그 후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상비가 증가하고 사학의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초과가 증대하면서 사학재정이 악화됨을 배경으로 법정화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1975년에 의원입법으로 사학진흥조성법이 제정되어 1976년부터 시행됨
 - 사학진흥조성법의 목적은 첫째, 사립학교의 교육조건 유지 및 향상, 둘째, 학생들에 대한 학업상의 경제적 부담 완화, 셋째, 사립학교의 경영건전성 향상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지원대상은 유치원·초중등·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법인에 적용되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연구와 관련된 경상비의 1/2을 보조할 수 있음

-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가 전무한 일본의 경우 사학진흥조성법에 근거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등록금 격차 완화에 어느정도 기여 하였다고 볼 수 있음. 2004년 국립대학법인화 이후에는 사실상 동결기조에 있었던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억제로 인해 사립대학 등록금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Ⅲ. 대학 등록금 현황

2024년도 국공사립대학 등록금 현황

- 2024년도 일본 대학의 설립자별 등록금 평균액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대부분은 문부과학성령에 따른 표준액(주간) 입학금 282,000엔, 수업료 535,000엔으로 초년도 등록금은¹⁾ 817,800엔임. 일부 국립대학의 경우 표준액을 상회하는 대학도 있음
 - 입학금은 도쿄예술대학(338,400엔 / 2017년부터 인상)
 - 수업료는 다음 6개 국립대학이 2019년부터 인상하였음
 2019년 : 도쿄예술대학(642,960엔), 도쿄공업대학(635,400엔),
 2020년 : 치바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히토쓰바시대학(642,960엔)
 2024년 : 도쿄농공대학(642,960엔)
- 국립대학의 경우 평균 입학금은 입학생과 학부모의 주소가 대학 지역내인 경우에는 221,399엔으로 지역외 382,423엔보다 낮으며 수업료는 지역내 536,471엔, 지역외 536,391엔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사립대학 입학금은 국공립대학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업료 평균액은 100만엔 정도로 고액이며 초년도 등록금도 국공립대학의 2배 정도로 높음
- 국공립대학은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간의 등록금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사립대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초년도 등록금이 높은 순으로 의대-치대-약대-간호·의료·영양-농대·수의축산·수산-공대-자연과학-체육·건강과학-가정·생활과학-교육·교원양성-국제관계-인문·교양·인간과학-사회·사회복지-인문-외국어-경제·경영순임

〈표 2〉 2024년도 국공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액

국립대학(표준액) 문부과학성령		공립대학(평균액)		사립대학(평균액)
주간	입학금 282,000엔	지역내	입학금 221,399엔	입학금 258,434엔
	수업료 535,800엔		수업료 536,471엔	
	초년도등록금 817,800엔 (입학금과 수업료 합계)		초년도등록금 839,988엔	초년도등록금 1,653,535엔
야간	입학금 141,000엔	지역외	입학금 382,423엔	
	수업료 267,900엔		수업료 536,391엔	
	초년도등록금 408,900엔 (입학금과 수업료 합계)		초년도등록금 1,006,239엔	

주1. 국립대학은 문부과학성령에 따른 표준액, 공·사립대학은 오분샤 교육정보센터 조사·산출에 따른 평균액

주2. 2024년도 학생모집을 한 대학을 집계, 통신대학, 전문직대학은 제외

출처: 오분샤(2024) 2024년도 대학 학비 평균액

1) 초년도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시설설비비, 각종 회비 등 입학 1년차에 납입하는 학비



〈표 3〉 2024년도 공립대학 학부계열별 학비 평균액

2024년도 공립대학·사립대학 학부계열별 학비 평균액

(단위: 엔)

학부계열	공립대학 지역내			공립대학(평균액) 지역외			사립대학		
	입학금	수업료	초년도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초년도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초년도 등록금
문학부	214,415	523,372	732,499	343,078	521,706	916,542	227,358	814,495	1,321,788
외국어학부	203,029	520,041	782,999	355,200	519,056	937,639	224,810	800,054	1,314,391
인문·교양·인간과학	218,263	532,831	805,593	359,886	532,189	970,056	225,657	846,447	1,342,116
교육·교원양성학부	236,580	540,711	754,625	367,556	539,044	940,977	233,102	812,496	1,372,084
법학부	197,493	534,646	761,051	349,057	533,657	949,815	218,244	812,872	1,284,127
경제·경영·상학	212,010	541,353	814,271	364,032	540,958	981,351	223,700	811,035	1,302,154
사회·사회복지학부	213,780	540,547	780,877	360,995	539,656	958,047	226,366	823,489	1,330,539
국제관계학부	218,179	544,314	847,662	367,289	544,630	1,001,921	221,028	841,100	1,343,723
이학부	217,812	537,240	759,418	352,155	535,742	944,707	226,738	1,094,603	1,612,198
공학부	219,340	537,428	786,568	351,732	537,141	946,708	232,391	1,096,910	1,644,956
농·수의축산·수산학부	235,783	535,800	810,333	373,867	535,800	948,416	246,923	998,353	1,641,364
의학부	258,125	540,450	967,531	555,571	541,114	1,268,350	1,346,774	2,738,548	7,122,754
치의학부	282,000	535,800	825,600	520,000	535,800	1,063,600	594,118	2,963,529	5,136,618
약학부	207,286	535,800	866,000	392,457	535,800	1,051,172	308,658	1,410,203	2,138,950
간호·의료·영양학부	225,044	537,286	825,162	382,087	537,133	991,810	257,620	992,367	1,711,494
가정·생활과학부	215,585	537,162	814,253	386,554	537,162	988,107	235,768	809,817	1,402,026
체육·건강과학부	189,875	557,100	765,950	337,450	557,100	913,525	236,769	850,787	1,425,847
예술학부	228,880	537,642	808,032	385,313	537,070	985,256	233,407	1,071,543	1,682,073

주1. 오분사 교육정보센터 조사·산출에 따른 평균액(아간포함/대학·학부단위로 집계, 산출)

주2. 2024년도 학생모집을 한 대학을 집계, 통신대학, 전문직대학은 제외

출처: 오분사(2024) 2024년도 대학 학비 평균액

대학 등록금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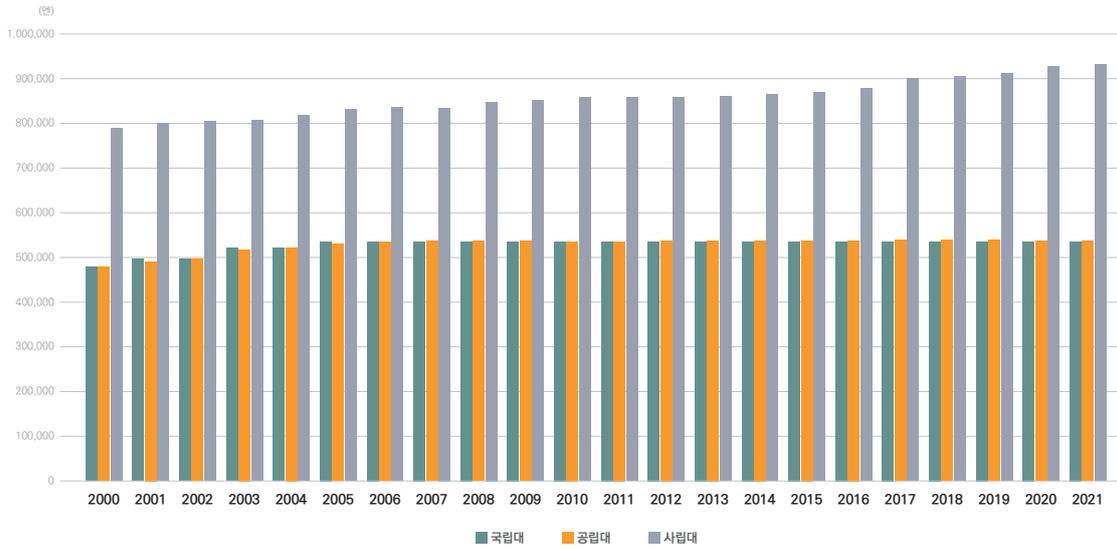
- 1975년에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36,000엔으로 사립대학 182,677엔에 비해 5배 정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상향되면서 1984년에는 국립대학 216,000엔, 사립대학 451,722엔으로 그 격차는 2배 수준을 보임
-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가 단행되면서 2005년에는 국립대학 535,800엔, 사립대학 830,583엔으로 약 1.6배 수준으로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이후 국립대학 등록금은 동결된 반면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2024년 현재 그 격차는 1.8배로 확대됨
 - ▶ 국립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배경을 들자면 첫째, 지난 20년간 일본경제의 침체로 물가상승률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약했고. 둘째, 국립대학 등록금 설정에 대한 정부와, 국립대학협회의 기본방침은 저렴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의 경제적 여력과 관계없이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은 국립대학의 책무이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수업료표준액의 인상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임
- 최근 10년간 등록금 추이를 살펴보면 사립대학은 입학금은 감소하였으나 수업료의 경우 8.5% 증가함

〈표 4〉 최근 10년간 사립대학 등록금 변화 추이

(단위: 엔)

연도	수업료	입학금
2010년	858,265	268,924
2021년	930,943	245,951
증감율	▲ 8.5% 증가	▼ 8.5% 감소

출처: 문부과학성 “국공립대학 등록금 추이”



[그림 1] 국공사립대학 수업료 추이

출처: 문부과학성 “국공사립대학 등록금 추이”

〈표 5〉 연도별 대학 등록금 추이(2000년~2021년)

(단위: 원)

연도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2000	478,800	277,000	478,800	383,607	789,659	290,691
2001	496,800	↓	491,170	387,200	799,973	286,528
2002	↓	282,000	496,800	394,097	804,367	284,828
2003	520,800	↓	517,920	397,327	807,413	283,306
2004	↓	↓	522,118	397,271	817,952	279,794
2005	535,800	↓	530,586	401,380	830,583	280,033
2006	↓	↓	535,118	400,000	836,297	277,262
2007	↓	↓	536,238	399,351	834,751	273,564
2008	↓	↓	536,449	399,986	848,178	273,602
2009	↓	↓	536,632	402,720	851,621	272,169
2010	↓	↓	535,962	397,149	858,265	268,924
2011	↓	↓	535,959	399,058	857,763	269,481
2012	↓	↓	537,960	397,595	859,367	267,608
2013	↓	↓	537,933	397,909	860,266	264,417
2014	↓	↓	537,857	397,721	864,384	261,089
2015	↓	↓	537,857	397,721	868,447	256,069
2016	↓	↓	537,809	393,426	877,735	253,461
2017	↓	↓	538,294	394,225	900,093	252,030
2018	↓	↓	538,633	393,618	904,146	249,985
2019	↓	↓	538,734	392,391	911,716	248,813
2020	↓	↓	536,382	392,111	927,705	247,052
2021	↓	↓	536,363	391,305	930,943	245,951

출처: 문부과학성 “국공사립대학 등록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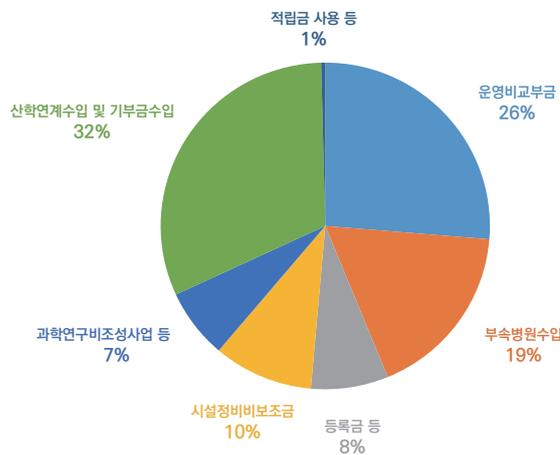
주. ↓ 화살표는 동결을 의미함



IV.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배경

도쿄대학 등록금 인상 배경

- 도쿄대학은 2024년 9월 2025년도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현행 535,800엔을 법정한도 20%인 642,960엔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학부는 2025년도 4월 입학생부터, 대학원(석사)은 2029년 4월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함
- 도쿄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지원책 확충방안으로 종전 세대소득 400만엔 이하인 경우 수업료 전액면제 조건을 상향하여 600만엔 이하 세대소득자에게도 수업료를 전액면제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확충된 자원(13억 5천엔)을 교육·연구 환경 개선·정비에 투입하기로 함
- 도쿄대학이 20년간 동결한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법인화 이후 도입된 정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인 ‘운영비교부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물가·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부족한 대학운영 경비를 등록금 인상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임
 - 도쿄대학은 2022년도 결산결과 COVID19 관련 대책과 UTokyo Compass(도쿄대 기본방침) 추진 등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51억엔의 경산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주로 에너지자원 급등과 광열비, 물가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도 도쿄대학의 경상수익 내역을 보면 수익 전체의 26.3%를 정부의 운영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바 운영비교부금은 2004년 법인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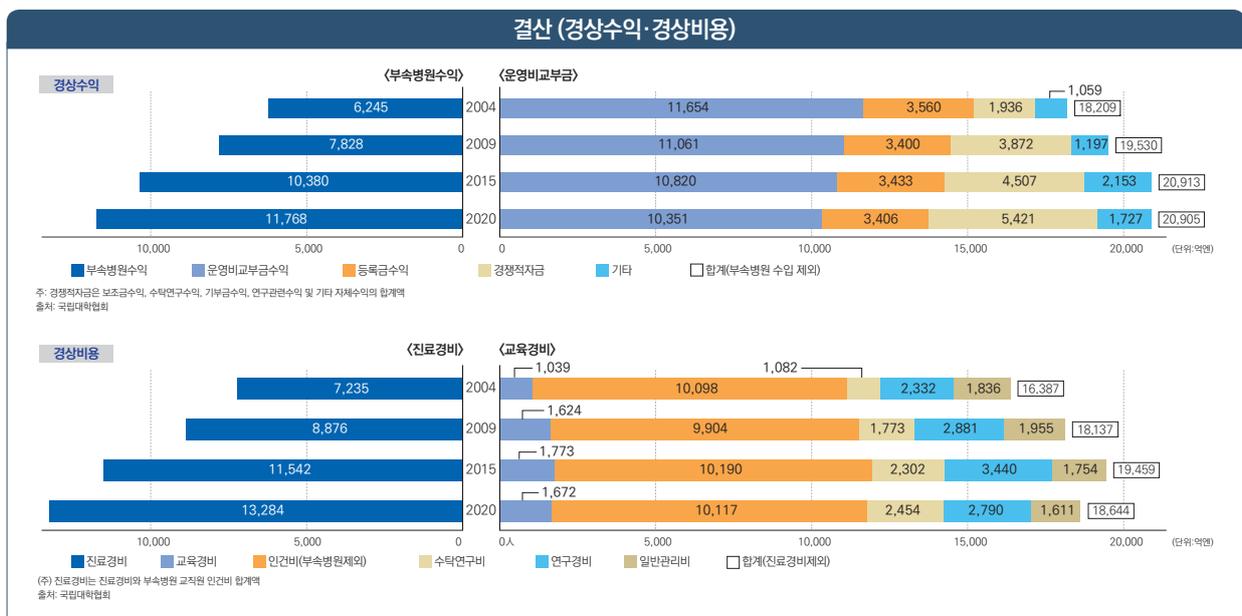
[그림 2] 도쿄대학 2023년도 수입지출결산

출처: 도쿄대학(2024), 2024 도쿄대학 개요

국립대학법인화와 운영비교부금제도

- 일본은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국립대학에 대한 법인화를 단행하여 기존의 99개 국립대학이 89개(2024년 82개 법인, 86개 대학)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재탄생하였음. 국립대학에 대한 법인화는 일본 고등교육 개혁에 있어서 제3의 개혁이라 부를 만큼 큰 개혁임
-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이후 지속된 경제침체로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일본정부는 규제완화정책과 행·재정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과 규제’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일본사회의 각종질서를 ‘시장과 경쟁’에 의해 유지되는 새로운 질서로 변혁·재편할 것을 지향하였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을 ‘시장과 경쟁’을 기초로 한 새로운 질서 하에서 대학운영의 효율성·합리화를 기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정부주도하에 국립대학 법인화가 단행되었음

- 법인화로 인한 가장 큰 재정제도상의 변화는 운영비교부금제도를 도입한 점임. 법인화 이전에는 각종 재정관련 법령과 예산결산 및 회계관련 법령 등의 적용을 받아 국립대학의 예산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인화를 계기로 문부과학성에서 국립대학 운영을 위해 배분되는 보조금은 예산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각 법인의 판단으로 단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운영비교부금으로 통일되었음
 - 운영비교부금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용도가 각 대학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임. 법인화 이전에는 국립학교회계제도와 문부과학성의 예산배분기준 등에 의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수익에 대해서 각 대학이 세운 중기목표 및 계획에 따른 자체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운영비교부금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교부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각 국립대학법인은 집행이 자유로운 운영비교부금 및 수업료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각 대학의 미션과 전략에 따른 유연한 내부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임
- 법인화 이전인 1999년도의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지원금을 합쳐 총 1조8천3백99억엔이 지원되어 전체 국립대학 수입액의 66%를 차지하였음. 이는 법인화 이전에는 국립대학 전체수입에서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국립대학 법인화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높은 비중을 줄이고 산학협력 연구비 수입과 기부금 등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운영비교부금은 2004년 법인화 이후 2013년까지 매년 1% 삭감되었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동일본대진진 부흥재원 확보 명목에 의한 임시적 조치로 전년대비 5.1% 삭감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삭감경향에 있음
 -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교부되어온 운영비교부금은 현재는 폐지된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화 계수'²⁾에 따른 대상 사업비에 대한 일률 1% 삭감정책에 따라 2004년 1조 2,415억엔, 2008년 1조 1,813억엔, 2013년 1조 792억엔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



[그림 3]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 추이(결산)

출처: 국립대학협회(2022) 데이터로 보는 국립협회

2) 2005년부터 도입된 '효율화계수'(각 연도별로 산정된 운영비교부금대상사업비의 1%분을 운영비교부금에서 삭감), 경영개선계수(2004년도 병원수입의 2%를 병원운영비교부금에서 삭감), 그리고 2010년에 상기계수를 대체하여 도입된 대학개혁추진계수(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은 1%,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은 1.4% 삭감) 등에 의한 운영비교부금 삭감은 국립대학재무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V. 일본 대학 등록금 규제의 시사점

- 일본정부의 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는 사립대학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대학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음. 국립대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경제사정과 관계없이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으므로 법정한도를 정해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음
- 그러나 국립대학법인화 이후 도입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인 운영비교부금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이 속출하고, COVID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일본의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이미 등록금을 인상한 도쿄대학을 비롯한 86개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사립대학 협의체인 '일본사립대학연맹'은 2024년 8월 국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상한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의 재량에 맡기며, 학생 개인의 능력과 경제형편에 따른 등록금면제, 장학금확충 등 학업지원제도를 제고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언함.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사학조성금 증액과 함께 고등교육 자원 확보대책으로 '교육국채'를 발행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사학조성금과 국립대학 운영비교부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함
- 한국과 일본의 등록금 규제 정책의 차이점은 우리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 대해서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립대학에 대해서만 규제정책을 두고 있다는 점임. 특히,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오히려 사학조성금을 통한 재정지원을 통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등록금 격차가 확대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참고문헌 및 자료

1. 국립대학협회(2024), 데이터로 보는 국립대학
2. 국립대학협회(2021), 제4기 중기목표기간중의 국립대학법인의 방향에 대해서
3. 도쿄대학(2024), 수업료 개정 및 학생지원 확충에 대해서
4. 도쿄대학(2024), 2024 도쿄대학 개요
5. 문부과학성(2024), 국공사립대학 등록금 추이
6. 오본사(2024), 2024년 대학 학비 평균액
7. 일본사립대학연맹(2024), 신공재정지원 방향 제언(2024.8.7)
8. 정원창(2021), 일본의 사학진흥조성제도 현황과 시사점(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슈브리프 2021년 제10호)